



# “K팝 한 페이지 장식했다 생각...우리의 길은 계속될 것”

### 슈퍼주니어 데뷔 18년...정규 11집 첫번째 파트 '더 로드' 발매 “15~17일 '슈퍼쇼 9' 3년 만에 대면 콘서트 열게 돼 꿈만 같아”

“항간에는 우리가 지겹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데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하하.” (은혁)

그룹 슈퍼주니어는 데뷔 18년 차가 됐어도 여전히 유행했고, 예전과 똑같이 정신없었다. 멤버 한 명 한 명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대본 없는 입담에 MC도, 지켜보는 취재진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정규 11집의 첫 번째 파트 '더 로드: Keep on Going' (The Road: Keep on Going) 발매를 기념해 열린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다.

팀의 리더 이특은 “SM의 역사가 길고 수많은 아티스트가 있었지만 정규 11집을 낸 가수는 슈퍼주니어가 최초”라며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지 않느냐. 슈퍼주니어라는 이름이 K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अच्छ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2005년 데뷔한 이들은 그간 '쏘리 쏘리' (SORRY, SORRY)·'미인아' 등 술한 히트곡을 배출하며 전 세계에서 K팝 한류를 이끌었다. 특히 '슈퍼쇼'라는 콘서트 브랜드를 앞세워 공연으로도 각국의 팬들을 만나왔다.

멤버들은 활발한 음악·연기·예능 활동을 펼치면서도 팬들을 잊지 않고 슈퍼주니어라는 깃발 아래 다시 뭉쳤다. 18년간 아이돌 그룹을 유지한 사례는 가요계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힌다.

신동은 슈퍼주니어의 통린 비결을 두고 “SM이라는 좋은 회사가 있기에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면서 “근 재가 재계약하는 데, 계약금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들이 겁이 많다”며 “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 나 안 할 거야 하고 나가면 그 팀이 깨지는데, 그러는 멤버가 없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멤버들에게 반쯤 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혁 역시 “(누군가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멤버들이 얼마나 욕을 할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거듭 웃었다. 이번 음반에는 타이틀곡 '망고' (Mango)를 비롯해 고백하는 과정을 재치 있게 풀어낸 '돈트 웨이트' (Don't Wait), 팝 발라드 '마이 위시' (My Wish) 등 총 다섯 곡이 담겼다.

동해는 “슈퍼주니어의 길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은 음반”이라며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하고픈 앨범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려욱은 “SMCU (SM Culture Universe)에서 슈퍼주니어가 '우주 여행자'라는 세계관을 맡았다”며 “여러 행성에서 각자 여행하다가 이번 11집을 통해 모이게 된다”고 했다.

타이틀곡 '망고'는 목직한 베이스와 신시사이저

사운드가 포인트인 펑키 팝 장르의 곡이다.

시원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채워주겠다”고 저돌적으로 들어대는 곡”이라며 “우리가 그간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을 직·간접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슈퍼주니어는 이달 15~17일 '슈퍼쇼 9'로 3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재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주하지 못한 팬의 목소리를 듣고자 음악 프로그램 출연 대신 콘서트 개최라는 '강수'를 줬다.

동해는 “3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열게 돼 꿈만 같다”며 “공연 연습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좋다. 서로 봐주며 웃어주고 공연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은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이) 약해지고 잊혀져요. 그런데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팬과 더욱 끈끈해지고 단단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룹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저희는 계속 갈 겁니다.” (이특) /연합뉴스

# TAKE 1.

### 아티스트 인생 최고 무대 넷플릭스 '테이크원' 제작



조수미 임재범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이 인생 최고의 무대를 꾸기기 위해 나선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는 새 오리지널 예능 '테이크원' (Take 1)을 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가수들이 '죽기 전, 단 한번의 무대만 남길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출연진은 노래, 시간, 장소, 초대할 관객까지 모든 것을 직접 선택해 무대를 꾸린다.

소프라노 조수미, 가수 임재범, 유희열, 박정현, 비, 그룹 악동뮤지션, 마마무 등이 출연하며 JTBC '싱어게인'·'투유 프로젝트-슈가맨3'을 연출한 김학민 PD가 연출을 맡았다. /연합뉴스

###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 SBS '동상이몽 2' 복귀



SBS TV는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예능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 돌아온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복귀한 진태현과 박시은은 18일 방송에서 함께 산부인과 검진에 나서는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

## 지연수 측 “거짓 방송으로 피해” 폭로에 “맞고소 상태...법적판단 기다릴 것”



KBS '자본주의학교' 지연수. /연합뉴스

방송인 지연수가 방송에서 거짓 발언을 일삼아 피해를 봤다는 폭로가 나오자 소속사가 반박에 나섰다.

11일 KBS 2TV 예능 '자본주의학교' 시청자 게시판에는 지연수가 방송에서 근거 없는 발언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 작성자는 지연수에게 2009년부터 6년간 금전적인 도움을 줬지만, 지연수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연수가 동성심을 얻기 위해 과거 행적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폭로해 전남편 일라이와 일라이 부모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지연수 소속사 에스드림이엔티 관계자는 “(글 작성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맞고소 상태로 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수는 지난 10일 방송된 '자본주의학교'에서 신용불량자로 지냈던 과거를 고백하면서 “공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안정된 울타리가 되고 싶다”며 식당 창업에 지원했다.

레이싱 모델 출신인 지연수는 2014년 그룹 유키스 출신 가수 일라이와 결혼했으며 2020년 11월 이혼 절차를 밟았다. 지난 1일 중영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에 일라이와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연합뉴스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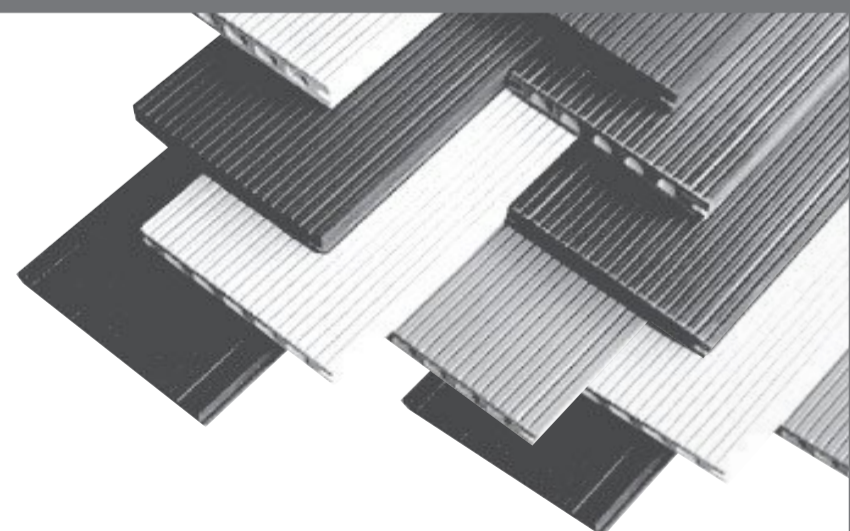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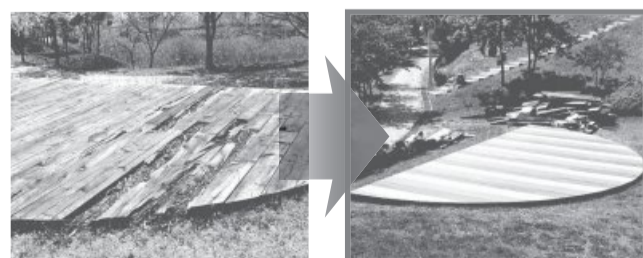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